

[본 이슈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드립니다]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1.19

이오플로우, 35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연구개발 및 신사업 추진 속도

- ▶ 인공체장 임상 및 연구개발, 신규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개발 및 관련 투자 등 계획
- ▶ 독보적인 이오패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증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2021-01-19]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가 임상, 연구개발 및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 목적으로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확보된 자금을 ▲웨어러블 인공체장 임상 및 연구개발 ▲신규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개발 및 관련 투자 ▲미국 내 웨어러블 인공신장 관련 자회사의 연구개발 및 라이선스 취득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글로벌 트렌드로 급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발맞춰 웨어러블 인공체장을 개발해 당뇨 관리의 토탈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센서,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의 인공체장이 개발되면 사용자 혈당의 실시간 측정, 인슐린 주입량 조절 및 자동 주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회사는 별도의 연속혈당센서와 연계된 웨어러블 분리형 인공체장을 개발 중이며, 일체형 인공체장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오플로우는 기존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솔루션에 인슐린 대신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적용한 신규 웨어러블 약물주입기로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며, 관련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맥주사 제형 의약품을 일상 생활에서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피하주사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피하주입 전용 웨어러블 약물주입기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오플로우의 제품은 약물 주입 이력이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 분석되고 보호자/의료진과 공유도 가능해 원격진료의 틀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오플로우는 확보된 자금을 웨어러블 인공신장 관련 자회사의 연구개발 및 라이선스 취득에 활용하여 인공신장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 1월 6일 미국 내 웨어러블 인공신장 개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투석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중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이번 자금조달을 통해 신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오플로우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인공체장, 인공신장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에 속도를 내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